

재판 거듭될 수록 전두환 옥죄는 증언·기록 쌓여간다

광주지법서 전두환 4번째 공판

“1980년 5월 21일 공중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니 헬기가 상공에 있었어요.”

10일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두환씨의 형사재판 4번째 공판기일에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명하는 의미있는 증언과 기록 공개가 이어졌다.

지난 3월 11일 재판에 출석했던 전씨는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은 뒤 법정 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항공단 상황일지 ‘폭도 사살 2명’ 기재…헬기사격 뒷받침

기독병원 간호조무사 “헌혈 행렬 후미에 헬기가 총 쏘았다”

재판부, ‘별컨포탄 1500발 지급’ 등 군기록 검토키로

이날 재판에는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을 비롯한 광주시민 6명이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해 직접 목격한 헬기사격에 대해 증언했다.

첫번째 증인으로 나선 정수만 전 회장은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뒷길을 통해 집으로 가던 중 시신 1구를 목격했는데, 시야에 들어오는 군인은 없었다”며 “공중에

서 ‘탕탕탕’ 하는 총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헬기가 공중에 있어 재빨리 나무 밑으로 숨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헬기사격과 관련한 다수의 군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이 공개한 육군 1항공여단 상황일지에는 1980년 5월 27일 새벽 5시 10

분 상황에 대해 ‘전과폭도사살 2명’이라고 기재돼 있기도 했다.

또한 계엄군의 수기(手記)에는 “1980년 5월 22일 오전 10시께 육군 31사단장이 505항공대 소속 500MD 무장헬기 조종사를 호출해 ‘로켓포를 쏘더라도 때려라’며 출동 명령을 내렸다”고 적혀 있었다.

정 전 회장은 또 전남북 계엄보소였던 전투병과교육사령부가 20mm 별컨포탄 1500발을 항공대에 지급한 내용이 담긴 기록과 함께 ‘무장시위 및 의명화력지원’이라고 적힌 계엄사령부의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도 공개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회장이 공개한 군 기록에 대해 추후 검찰에 제출하면 검토하

겠다고 밝혔다.

5·18 당시 고교 3년 학생으로 항쟁에 참여했던 홍모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5월 21일 금남로에서 양림동 집으로 돌아가던 중 총소리와 함께 상공에 떠있는 헬기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검사 2종의 헬기 사진을 보여주자 자신이 목격한 헬기로 UH-1H 기종을 지목했다.

증인 최모씨는 “5월 21일 오후 2시30분께 불로동 인근 상공에 헬기 한 대가 떠나 격하는 모습을 봤다”며 “헬기는 공중을 선회한 뒤 전남도청 방향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5·18 당시 광주기독병원에서 간호조무

사 실습생으로 일했다는 최모(여)씨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항쟁 기간 병원 밖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공터에 선 헌혈 행렬 후미에 헬기가 총을 쏘고 있었다”며 “빛방울이 마른 땅에 처음 떨어질 때처럼 바닥에 총탄이 튀었고 총을 맞은 사람도 있었다”고 분노했다.

한편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2017년 4월 폐년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발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도 기소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면허없이 제트스키 타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적발

면허없이 수상레저기구인 제트스키를 즐긴 40대가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목포시 갯바위 인근 바다에서 무면허로 제트스키를 조종한 문모(43)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9일 오후 12시 30분께 목포 문화예술회관 수상스키 계류장에서 출항해 1시간 20여분 동안 갯바위 인근에서 친구에게 빌린 제트스키를 타다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 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소정의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을 할 수 있다”며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

10일 광주시 북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이 중흥동의 한 경로당에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다. 북구는 올 여름 371개 경로당에 615대의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성 민물고기연구소 화재

25분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10일 오전 11시 50분께 장성읍 장성읍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불이 났다.

불은 398㎡ 면적인 먹이생물배양동 내부 등을 태우고 25분 만에 꺼졌다.

소방서 추산 6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민물고기연구소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운영하며 담수어 양식기술 등을 개발하는 시설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전공의 상습 폭행·모욕 의대교수 징역형 확정

수술보조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김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5~2017년 수술실이나 진료실 등에서 같은 과 전공의 7명을 상습적으

로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술보조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나 머리, 뺨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간호사나 환자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체 비하적 표현이 섞인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업무상 실수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폭행·모욕하고 소속 병원을 장을 포함해 병원 관계자들이 엄벌을 탄원했는데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의사가 폭행·모욕죄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의사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의료법은 의료법 위반이나 정신질환, 마약류 복용 등의 경우에만 의사 자격을 박탈토록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진도 고군면 앞바다서 부패된 변사자 발견

진도 앞바다에서 숨진 지 오래돼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전북 양식장을 운영하는 이모(56)씨가 지난 9일 낮 12시40분께 진도군 고군면 내동리 앞 400m 해상에서 양식장 구조물 사이에 끼어 있는 변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

했다.

해경 조사 결과 변사자는 키 173cm의 남성으로 긴팔 회색티셔츠에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신분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국과수에 의뢰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한 후 범포 혐의점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트럭 전복 후 추돌사고

서해안고속도로서 2명 사상

10일 오전 7시 30분께 고창군 고창읍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77km 지점에서 A(68)씨가 몰던 2.5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어 뒤따라오던 B(38)씨의 BMW 차량이 전복된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B씨가 병원 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몰순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덤프트럭·화물차 충돌

영광 교차로서 6명 중경상

10일 오전 6시 30분께 영광군 대마면 한 교차로에서 15t 덤프트럭과 1t 화물차 충돌했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 운전자 김모(39)씨와 화물차 조수석과 뒷자리에 타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 5명 등 6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음주운전 상시 단속 예고 하루만에 현직경찰 ‘딱 걸렸네’



○...광주지방경찰청 이 오는 25일 운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주야 상시 음주단속을 예고한지 하루만에 현직 경찰이 적발돼 난색.

○...1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동운지구대 소속 A순경은 지난 9일 새벽 0시 20분께 북구 용봉동 인근 호남고속도로 용봉IC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됐다.

○...A순경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가 나왔는데, 북부경찰 관계자는 “A순경이 시보를 마지키면 한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판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1566-9988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J16 40 point 8 5 1
J10 20 point 1 6 5 2 4
J8 14 point 6 8 2 4 7 5 8 1
J7 12 point 2 5 1 6 4 9 7 8 3
J6 10 point 1 3 0 7 5 8 4 9 2
J5 8 point 2 4 6 3 7 1 2 8 0
J3 6 point 4 6 2 8 1 0 9 7 3
J2 5 point 5 7 6 2 1 4 3 0 2
J1 4 point 8 1 7 3 9 9 0 0 2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J1+ 3 point 0 0 0 0 0 0 0 0 0 0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